

# News & News



## 치과 직원 임금계산표 선포 치협 홈페이지 회원 전용 게시판서 다운

치과 직원들의 임금계산 시 고용보험 및 각종 세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연봉 내역을 손쉽게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2009년 '직원임금 계산표'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직원임금 계산표는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 특위(위원장 기대석)가 지난 2008년에 선보인 '직원임금 계산표'에 이은 2009년도 수정 버전이다.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 특위는 지난해 "의원급의 경우 중소 병원급 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심각한 보조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이는 연봉계산 시 산출의 문제일 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특위 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급에서 직원들의 연봉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직원임금 계산표'를 만들어 선보인 바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중소 병원급 치

과들의 경우 4대 보험과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산출하는 반면 의원급 치과들의 경우 식대와 4대 보험료를 연봉 외 개념으로 산출해 병원급과 상대적으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일선 치과의원들도 직원들의 임금을 병원급과 같은 일정한 틀에 맞춰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만들으로써 보조인력 구인 시 연봉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직원임금 계산표'는 본봉, 식대, 월지급액,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의 세금 내역과 월 실수령액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실제 연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 '직원임금 계산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http://www.kda.or.kr)) 회원 전용 자유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개편·회무 전산 개발 등 의견 수렴 전국시·도지부 총무·정보통신이사, 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치협의 홈페이지 개편과 회무전산 웹 프로그램 개발의 완료시점(3~4월)이 다가오면서 이에 관한 홍보와 의견수렴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영채)는 지난 2월 21일 대전 유성구 스피피아 호텔에서 '각 지부 총무·정보통신이사 및 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치협이 추진 중인 치협 정보화 사업(협회 홈페이지 개선 및 KDA 오피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각 지부의 실질적인 회무를 맡고 있는 총무이사들도 함께 배석해 정보화사업에 관한 조언을 쏟아냈다.

이원균 정보통신담당 부회장과 유석천 총무이사가 함께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는 박영채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협회 홈페이지 개선 및 KDA 오피스 진행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했으며, 각 지부 총무·정보통신이사가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의토론 시간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각 지부 및 분회를 위한 대책과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의 준비 상황 및 보안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을 점검했다.

박영채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4월에 배포해

원활한 사용이 가능케 하고 보완점을 취합해 올 하반기 중에 전산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정회원 및 회비 관리 등 지부 고유의 내용은 지부만 볼 수 있도록 제작할 것"임을 밝혀 지부의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해소하는 한편 "미가입 회원 관리 등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 후 따로 가진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부와 분회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을 느꼈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협회와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회가 낮은 자세로 적극 지원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원균 정보통신담당 부회장은 "치협의 정보통신화 사업의 핵심은 지부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부분과 배너 광고를 제거하며, 이 저널(E-journal)강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원활한 회무와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News  
& News

## 대외협력위 관련 지부별 업무 교류

### 전국시·도지부 대외협력이사 연석회의

전국 시·도지부 대외협력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2월 7일 열린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 관련 업무 및 지부간의 업무 교류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가 치협 대외협력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각 지부 대외협력(섭외)이사들이 대외협력위 관련 지부별 업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해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치과기공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 치과기공소 지도점검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상호 관계개선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대외협력과 관련한 국회, 정부, 유관단체 등과의 긴밀히 유대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지속화 노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교섭활동을 통한 공조방안 모색 등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김세영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통해 협회 및 지부간에 활발한 업무 교류를 가졌으면 한다”며 “지도치과 의사제도를 포함한 대외협력위 관련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섭외위원회 및 섭외이사’가 ‘대외협력위원회 및 대외협력이사’로 변경됐다”고 설명하며 “각 지부에서도 명칭 개정을 위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  
& News

## 실라트 급여화 소아치과학회에 용역

### 6월말까지 연구 결과 도출... 회원 의견 듣기로

치협은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의뢰해 치아홈메우기 급여화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6월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TF팀(위원장 우종윤)은 지난 2월 9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12월에 급여화하기로 결정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논의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관련된 용역을 소아치과학회에 의뢰해 3월부터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 6월말까지는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또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경 공청회를 열어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검토했다. 마경화 이사는 이번 연구와 관련 “그동안 노인틀니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치아홈메우기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했다”며 “이번에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유지관리 및 교체 주기, 관행 수가, 재수복률, 외국의 사례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 급여화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1천3백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6~14세 아동의 제1·2 대구치에 대해 치과이용률을 36%, 보험자 부담률을 70%로 적용했을

때로 추정된다.

또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한 과거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가치점수가 146.21점(98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으로 산출된 바 있으며, 96년을 기준으로 초진료 2만2779원(러버댐 장착, 8세미만 가산 적용 안함), 재진료 1만9370원(러버댐 장착, 8세미만 가산 적용 안함)으로 산출된 바 있다(06년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이날 회의에서는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시 자칫 잘못된 정책이 실행되면 ‘제2의 스케일링 사태’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면서 치아홈메우기 급여화가 치과의사와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예방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포함되게 됐다”며 “그러나 치아홈메우기를 급여화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 TF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 급여화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치과분야 급여화 방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